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두 명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의 뜻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관점이 다양합니다. 영어 성경 ESV를 보면 “실상”을 “assurance” (확신), 그리고 “증거”를 “conviction”(신념)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너머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9은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의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왜곡하므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뢰의 대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인 아벨과 에녹의 예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해 줍니다. 본문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제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포함된 제사임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14(월)	11/15(화)	11/16(수)	11/17(목)	11/18(금)	11/19(토)	11/20(주일)
요18-19	요 20-21, 행1	행2-4	행5-7	행8-9	행10-12	행13-15

QT

이번 주 QT 말씀

11/14(월)	11/15(화)	11/16(수)	11/17(목)	11/18(금)	11/19(토)	11/20(주일)
창47:1-12	창47:13-22	창47:23-31	창48:1-11	창48:12-22	창49:1-7	창49:8-2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3.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